# 유럽형 복합문화시설 전주에 상륙

##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 18일 견본주택 개관
## 교통 · 대로변 · 배후수요 등 입지적 장점 두루 갖춰
## 로마 콜로세움 구현한 독특한 외관설계로 이목 집중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 조감도.

현대BS&C는 오는 18일, 전주 에코시티 최초로 대단위 상가와 오피스텔이 함께 조성되는 유럽형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는 전주시 에코시티 상업 C-5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연면적 7만5,977.66㎡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는 에코시티 내 유일한 상업지구에 들어서며 오피스텔로는 에코시티 내 처음으로 공급된다.

또한, 판매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6층에 309실로 조성되며 '현대썬앤빌 전주'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2~33㎡ 402실로 구성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별로 ▲22㎡ 306실 ▲29㎡ 84실 ▲33㎡ 12실로 이뤄진다.

더불어,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는 입지적인 장점 요소는 물론 그동안 전주에서 볼 수 없었던 최초의 유럽형 복합문화시설로 설계돼 차별화된 외관까지 갖춰 희소가치가 높다.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는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동부대로, 송천중앙로를 이용해 전주 전역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며 전주IC가 인근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한 광역 이동이 수월하고 에코시티 중심상업지구로 초입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 역시 뛰어나다.

배후수요도 탄탄하고 단지가 들어서는 에코시티는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중이며 입주가 마무리되면 총 1만3,000가구의 배후수요가 확보되며 인근 송천권역 등 기존 배후수요도 갖췄다. 오피스텔의 고정고객은 물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늘찬공원, 공공청사, 업무시설의 풍부한 유동인구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독특한 외관 설계가 눈에 띄고 단지는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구현해 설계됐으며 포로 로마노 유적지와 스페인 계단 같은 세계적인 명소를 재해석한 이국적인 건축 요소도 적용되며 점포 앞면을 유리로 구성해 개방감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콜로세움을 모티브로 한 중앙 메인은 이국적인 테마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실내에서도 하늘이 열린 공간으로 구성해 뛰어난 개방감을 선사한다. 콜로세움의 건축 양식을 차용함에 따라 레벨차로 인해 두개의 1층이 생겨나는 점도 독특하며 실내 전 층은 계단식 원형 테라스로 꾸며지고 광장이 조성돼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라운드형 아케이드 스트리트몰로 조성된다. 주요 동선상에 걸쳐 있는 건축 요소에 집객성이 뛰어난 키 테넌트를 배치할 계획이며 CGV 영화관은 입점 확정됐다.

오픈식을 기념해 이벤트도 풍성하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고객에게는 골드바를 비롯, LG건조기, 공기청정기, 식기 세척기, 다이슨 청소기, 식기 세척기, 온수매트 등 매주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가 준비됐고 내방객들을 대상, 황금돼지 저금통 사은품을 증정하고 토정비결과 타로 등 오픈 축하 신년운세 이벤트도 펼쳐진다.

한편,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의 견본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93-96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1899-53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연말정산 시작,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 도서 · 공연비 신용카드 결제시 공제율 30% 적용
##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 34세로 확대

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들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썼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다만 사용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된 도서·공연사업자여야 한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됐다. 감면 적용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의 경우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으로 늘어났다. 적용 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주거 부문에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아예 폐지됐다. 기존에는 7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전액 공제가 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 쌀 등급 표시율 92.6%… 전년比 40%p 급상승

지난해 의무화된 쌀의 등급표시제도에 따라 표시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쌀 등급표시율은 1년 전보다 40.2%포인트 상승한 92.6%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전국 양곡매매업체 등 1146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두 달간 조사한 결과다.

쌀 등급표시는 작년 10월부터 의무화돼 기존에 가능했던 등급 외 '미검사' 표시가 금지됐다.

특·상·보통·등외 등 등급 표시를 무조건 해야 한다.

업체별로는 대형유통업체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96.3%, 98.6%로 높게 나타났다.

단일품종 표시율은 1.0%포인트 상승한 34.2%로 나타났다. 흔히 단일품종 쌀이 혼합제품보다 맛이 좋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한편 작년 양곡표시제도 이행률은 0.1%포인트 상승한 97.7%로 집계됐다. 양곡표시제도는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품질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양곡표시제도 이행률은 지난 2013년(96.1%)부터 꾸준히 상승세라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됐단 평가다.

/뉴시스

# 고산농협, 문화교실 개강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15일 고산농협 웰컴센터에서 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 등 여성조직회원과 원로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생활의 활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 고산농협 문화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문화교실은 건강강좌·생활금융·PLS교육·농협사업이해교육·문화탐방·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은 "복지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에서도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여성농업인 및 원로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韓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세계 8위… GVC 전방참여 높을수록 ↑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체제에서 부품 생산이나 연구개발(R&D) 등 '전방 참여'가 높을수록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전세계 61개국 중 8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방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산업별 분석' 보고서(김종섭 서울대 교수·이승호 서울대 박사과정·음지현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의 GVC 전방참여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지난 2000~2011년중 61개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가 공동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내 부가가치 수출을 추정한 'TiVA' 데이터를 토대로 산업별 GVC 참여도에 따른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분석했다.

GVC 참여방식은 다른 국가의 수출에 사용되는 부품 등 중간재를 생산 수출하는 것을 전방참여로 수입한 중간재를 가공·조립해 수출하는 것을 후방참여로 나눠 분석됐다.

그 결과 자동차 등 운송장비 제조업은 전방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증가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처럼 R&D나 디자인 능력을 보유한 일부 국가만이 완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고, 산업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반면 표준화·자동화 정도가 높은 전기·광학기기 제조업은 후방 참여도가 올라갈수록 부가가치 수출이 높아졌다. 다만 R&D, 고도화된 설비를 요구하는 반도체에 한해서는 전방 참여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기준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섬유·식료품 제조업은 전·후방 참여도가 양쪽 다 높을수록 수출 비중이 상승했다. 기술 수준보다는 원자재에 더 영향을 받고, 소비자 중심의 공급 체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 이어 관찰대상국 가운데 중상위권에 위치했다"며 "후방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산업별로 참여도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NH농협생명 전북총국, '백세시대 치매보험' 출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백세시대 NH치매보험' 출시 관련 농·축협 직원 250여명을 대상, 15일 지역본부에서 신상품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치매의 위험과 대비'라는 주제로 전북도 마음사랑병원의 강남인 박사 특강과 신상품 '백세시대 NH치매보험' 교육으로 이뤄졌다.

다음주 21일 출시를 앞둔 '백세시대 NH치매보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농협생명 최초의 치매보험으로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교육 이후 농협생명 전북총국 임직원 교육을 수강한 농·축협 임직원 모두 전북도광역치매센터에서 발급하는 '치매파트너증'을 수여받아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태 기자